

국토균형발전 및 철도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전선 SRT(수서행 고속열차) 운행 건의

2021. 6

※ 건의처 : 청와대
국토교통부
지역 국회의원
(주)SR

국토균형발전 및 철도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전선 SRT(수서행 고속열차) 운행 건의

0. 현황 및 필요성

창원을 비롯한 경상남도는 340만명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 일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써 수도권과의 교류를 위한 대중교통망인 철도 수요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은 곳임

특히,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지역내 기업체 및 대형 국책기관 임직원들의 업무출장 등 고속철도 이용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지역 기업인과 근로자는 물론 지역민 모두가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위한 고속철도망 확대를 지속적으로 희망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산업·의료·문화 등 인적·물적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과 교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고속열차의 경우 운행편수가 타 지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좌석을 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내 혼잡도는 매우 높은 상황임

- 영남권 주요 도시 주말 고속철도(KTX + SRT) 왕복 운행 횟수
대구(262회), 부산(199회), 울산(117회), 창원(40회) [2021.6 기준 한국철도공사]

특히, 서울 강남 및 경기동남부 권역으로 이동을 위해서는 현재 동대구역에서 SRT로 환승후 이동해야 함에 따라 고속철도 이용에 따른 시간적 이점이 상대적으로 반감됨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손실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더욱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운행시간, 불합리한 배차간격 등은 창원을 비롯한 영남권역이 전국 최고의 교통오지로써 지역발전을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럼에도 지난 2016년 개통한 서울 강남과 경기 동남부권으로 연결되는 수서발 고속철도(SRT)는 운행노선이 기존 경부선과 호남선으로 제한되어 있어, SRT개통의 혜택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 및 (주)SR에서 전라선 노선에 대해 SRT를 투입하여 시범운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수요인구 및 이용률이 높은 경전선에 대한 운행계획은 알려진 바가 없음.

현재 경전선 운행 구간내 정차도시의 인구는 전라선에 비해 2.7배에 이를 정도로 월등한 잠재적 수요가 있으나, 열차운행 횟수는 경전선이 전라선에 비해 오히려 적게 운행되고 있음

* 노선별 정차도시 인구

경전선 : 442만명(대구 240만명, 밀양 10만명, 김해 54만명, 창원 103만명, 진주 35만명)

전라선 : 164만명(익산 28만명, 전주 66만명, 남원 8만명, 곡성 3만명, 구례 3만명, 순천 28만명, 여수 28만명)

* KTX운행 횟수

구분	주 중(월 ~ 목)			주 말(금 ~ 일)		
	경전선	진주역	마산역	창원중앙역	진주역	마산역
	12회	24회	18회	18회	32회	26회
전라선	여수엑스포역	순천역	전주역	여수엑스포역	순천역	전주역
	28회	28회	30회	32회	32회	36회

※ 자료 : 한국철도공사, 2021.6 기준

* 노선별 KTX이용율(2019년)

노선명	이용률		
	일평균	주중	주말
경부선	91.0%	82.1%	101.0%
경전선	104.7%	91.8%	116.3%
호남선	72.0%	68.0%	84.0%
전라선	100.2%	91.0%	112.6%

※ 자료 : 전국철도노동조합

더불어 경전선의 일평균 이용률은 104.7%, 주말 이용률 116.3%로 타 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어, 추가 고속철도 운행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0. 건의

국토의 균형발전과 타지역에 비해 부족한 철도서비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현재 정부 및 (주)SR에서 SRT 시범운행 노선으로 추진중인 전라선과 더불어 경전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됨

이에 현재 경부선에 운행 중인 SRT 차량 일부를 복합열차 방식으로 경전선에 투입하거나 코레일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림

2021. 6. 14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천